

第43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7月14日(金) 午後4時

第43回城北區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式
1. 國旗에 대한 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1. 議員宣誓
1. 開會辭
1. 區廳長祝辭
1. 閉式

(司會: 議事係長 鄭恩秀)

(16時00分 開式)

○議事係長 鄭恩秀 지금부터 제4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대한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柳成烈 본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북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성북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최철모 오영작 서화석 윤홍노 홍성진
윤만환 김갑제 이용섭 박경석 권혁기
유진무 김민석 임태근 김광식 김영기
안결용 신종현 안돈수 김진권 김수영
문경주 김영식 이연경 최계락 김동은
신재복 최동환 이승노 허동익 박시준
류성열 정창만 김순권 이대일 나광수
김남효 송하성 고윤근 조기찬 유홍선
서영진 구재영

○議事係長 鄭恩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柳成烈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진영호 성북구청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실로 34년만의 본격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혼돈으로 점철된 헌정 반세기가, 오늘의 지방화시대라는 옥동자를 잉태하기 위한 오랜 기다림이었음을 확인하는 축복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난산에 난산을 거듭한 끝에 탄생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로 시작된 지방화시대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삶의 이정표일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구정의 틀 자체의 변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집행기관은 구민의 뜻을 받들어서 한차원 높은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의원 모두는 구정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기존의 틀을 깨고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50만 성북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헌정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지방행정의 책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역주민들이 거는 기대는 주민 개개인의 개인적 요구에서부터 지역전반에 걸친 이해관계등 수많은 생활민원에서 볼수 있듯이 자못 크다 할 것입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지역간, 계층간, 직능간의 이익을 실현 조정하는 의회의 대표기능은 물론, 사회·문화적·상호갈등의 조정과 해소 또한 우리 의회에서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풀어나갈수 있는 역량은 분명 50만 성북구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더욱더 강하게 결집시켜서 소망스럽고 밝은 성북의 미래를 여는 견인차의 역할은 우리 의회의 몫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바로 세우고 토론과 합의의 문화가 꽃피는 생산적인 성북구의회를 만들어서 구민의 뜻을 존중하고 구민의 뜻을 모아 구민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생산적인 화합의 장을 열어 나갑시다.

희망찬 성북, 풍요로운 우리 지역 성북구를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 정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1995년7월14일

성북구의회 의장 류 성 열

○議事係長 鄭恩秀 다음은 성북구청장님의 축사가 있습니다.

○區廳長 陳英浩 오늘 제2대 성북구의회 개원을 52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성북구의회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류성열 의장님, 신종현 부의장님, 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제2대 구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2대 구의회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철원 지구당 위원장님, 박덕기 시의원님, 최종오 시의원님, 이시영 시의원님 그리고 각급 기관장님, 직능단체장대표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초대 의회에 이어 오늘 제2대 성북구의회가 개원 되었습니다. 6월 27일 전국동시4대지방선거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면서 신념과 희망속에서 성북발전은 힘차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화합행정, 자율행정, 개혁행정, 경영행정,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으로 성북구는 한걸음 한걸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구민에 의하여 선출된 구의회와 구민에 의하여 선출된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의회와 구청은 권한과 기능이 각각 다르지만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는 결국 같습니다.

의회와 구청은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때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이룰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건설적인 비판을 기대하겠습니다.

성북의 발전, 구민의 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의회와 구청은 많은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흔두분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이자리에 계신 내빈 여러분께서도 성북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피력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선거때 구의원으로서 출마 하시어 지

역 주민에게 하신 공약사항 하나 하나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국장, 과장과 협의하여 주시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성북을 살리고 구민에게 희망을 갖게 할 청사진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협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민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할때입니다. 성북을 살리고 성북을 발전 시키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구민에게 봉사하고 성북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북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서 구의회와 구청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하나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구정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첫째는 화합행정입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희망을 갖도록 하려고 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베푸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자율행정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특성에 걸맞는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 의견을 신속히 파악, 구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래의 선례답습적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앉아서 민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세째는 개혁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관료의식을 버리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겠다는 신 사고로 변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행정정보를 완전 공개하여 유리병 속을 들여다 보듯 투명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경영행정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성공을 위해 경영관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토지이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공공토지를 재조사할 것이며, 수익사업을 증

대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만들고 공채 발행, 민자 유치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줄 것을 믿습니다.

다섯째, 복지행정의 확립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산업재해자, 보호대상 노인, 장애자, 소년소녀 가장이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섯째는 성북문화원을 건립합니다. 성북인의 자존심을 되찾고, 애乡심을 높이기 위하여 성북문화원을 건립하겠습니다. 예술작품을 전시 판매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보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센터를 운영,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의원 여러분, 각급 기관장 및 내빈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동 구청장실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길음2동등 7개지역의 현장에 직접 나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일상화, 정례화 되어있는 업무는 부구청장에게 일임하고 위험시설, 소외계층 집단지, 절개지, 공사장, 재개발 사업현장, 민원발생지등 우리 성북구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석 구석을 계속 찾아 다니면서 생생한 의견을 모아 직접, 간접으로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행정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는 한편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개발 전문팀 구성을 착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성열 의장님, 신종현 부의장님, 의원님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제가 구상하는 모든 사업들은 오직 성북발전을 위한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대 성북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류성열 의장님, 신종현 부의장님의 의장단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오며 52만 구민과

함께 제2대 성북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구청은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성북구가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대 성북구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52만 성북구민의 안녕과 행운을 빌면서 참석하신 내빈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議事係長 鄭恩秀 이상으로 제43회 성북구의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時09分 閉式)